

http://dx.doi.org/10.17703/JCCT.2019.5.2.1

JCCT 2019-5-1

정신장애인의 체험홈 이용경험에 관한 연구

The Lived Experiences of Supported Housing among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구춘영*, 김미영**, 구진희***

Koo Chun Young*, Kim Mi Young**, Koo Jin Hee***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들의 체험홈 이용 경험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현상학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총 9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연구참여자로 모집되었으며, 2016년 9월부터 2018년 3월에 걸쳐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자료는 녹음하였으며, 자료는 Colaizzi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주제모음, 17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 생활터전의 혼란스러움, 2) 체험홈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3) 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 4) 주도적인 행동을 선택함, 5)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움, 그리고 6) 진정한 삶에 통합함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체험홈 프로그램 확대 및 프로그램 질 향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더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개입과 회복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례관리자 확대가 정신보건영역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정신장애인, 질적연구, 자립, 정신건강서비스, 주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 depth the lived experiences of utilizing supported housing among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Phenomenological approach was used for this study. A total of 9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were recruited as research participants.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from September, 2016 to March, 2018. Transcribed data from audio recordings on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the Colaizzi method. 6 clustered themes consisting of 17 sub-themes emerged through the qualitative data analysis and they include the following: 1) Confusion at site daily residence; 2) Feeling relaxed in supported housing site; 3) Development in self-perception; 4) Undertaking a leading role; 5) Growing capacity for independent living; and 6) Integration into normal lif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expanding supported housing and improving its quality for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re needed. Additionally, the field of mental health need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 managers with expertise in dealing with people suffering from psychiatric disabilities and their recovery.

Key words :Mentally illness persons, Qualitative research, Independent living, Mental health services; Housing

1. 서론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 체계 내에서 주거는 정신장애인의 회복[1], 자립을 위한 준비[2]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정신장애인 718명, 가족 668명으로 총 1,386명

1. 연구의 필요성

*정회원, 승인사회복지시설(제1저자) (정신건강간호사 1급)

**정회원,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신저자)

***정회원, 뉴욕주립대 알바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저자)

접수일:2019년 1월 27일, 수정완료일: 2019년 3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25일

Received: January 27, 2019 / Revised: March 2, 2019

Accepted: March 25, 2019

**Corresponding Author: minocin@daum.net

Dept. of Nursing, Kaya Univ, Korea

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는 정신장애인의 주거준비에 대한 계획은 모르겠다가 36.6%, 부모가 마련해 준 주택 22.7%, 사회복지시설 22.1%, 형제, 자매의 집 10.6%로 나타났다[3].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는 주거시설보다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생활을 선호하는 경우가 높았다[4].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거서비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재활시설은 341개소로 이 중 생활시설로 입소 및 주거시설은 132개소로 입소자가 24시간 휴식, 취침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입소는 정원 50명 이하, 주거는 10명 이하로 가능하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은 최장 3년 본 연구에서는 체험홈의 이용기간 제한이 있고 주거와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신요양시설은 이용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시설 내에서 주거와 식사를 모두 해결하는 형태로 기관주도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 이외 장애인의 경우 입소시설이외에도 그룹홈, 체험홈, 자립지원센터 등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6].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을 둔 거주시설 설립의 중요성[7]과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제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4]. 또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정책방향을 지역사회 주거인 입소시설보다는 정신장애인 스스로의 생활공간인 주택 개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8].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경우 주거지원을 위한 제도적 서비스에 부족함이 있고 정신재활시설의 52%가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지역사회 움직임에 힘입어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병원과 가정의 중간(Halfway house) 형태인 치료적 주거훈련공간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하였다[9]. 이 사업의 성과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가면서 독립주거의 준비와 주거지원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9].

정신장애인의 주거생활은 정신과적 증상과 일상생활,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7]로,

결국 지역사회로 통합[7, 10]을 가져온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증가하기에[1], 정신장애인 자립 과정에 있어서 주거서비스는[10]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영국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1]. 미국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주거연속체 모델에 따른 다양한 연구[2]와 주거준비과정 및 주거지역에 따른 차이[1], 사례관리자의 역할[12] 등 지역사회 주거지원체계의 연속선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욕구[10]와 특정 거주시설에서 삶의 만족도[13]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정신장애인의 독립주거[14], 제도적 공간 거주[15], 지원주거[16] 경험,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이용에 대한 경험 등으로 일상생활지원이 주요주제로 다루어졌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자립지원으로 위한 공동생활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적장애인[17], 발달장애인[18]으로 한 연구만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신장애인의 주거지원서비스의 형태가 아닌 민간 지원의 체험홈 이용경험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자립준비를 위한 주거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적응 향상을 위한 자립준비에 대한 정신재활중재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자립 준비를 위한 체험홈의 본질을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 자립준비를 위한 체험홈 경험은 지역사회 정신재활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1) 체험홈

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지원으로 S사회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진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다. 체험홈의 이용기간은 1년이며(1회에 한해 연장가능), 임대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여 독립주거로 이전 시 체험홈 경험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자립 준비를 위한 체험형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하는 목적적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목적적 표본추출의 근거는 정신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이용, 자립생활 준비 경험이 없으며, S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으로 구별하였다. 참여자 표출은 연구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부터 체험형 입주계획을 수립한 대상자로 하였다. 이중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대상자 2명을 제외하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9명으로 1년간 체험형 경험을 한 대상자 6명과 6개월간 체험형 경험을 한 3명이었다. 1차 대상자들은 2016년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6명의 대상자의 자료수집과 분석이 포화되었다. 이후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차 자료수집기간의 3명을 추가 인터뷰하였으며, 체험형 경험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동안 포화가 형성되어 최종 9명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자료는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7개월이었다. 면담장소는 연구참여자가 편안해지는 장소인 체험실에서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도록 개별적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자료는 개인 심층면담으로 수집되었으며, 개인 심층면담의 소요시간은 1회에 30~1시간 30분 정도였으며, 횟수는 개인당 3~4회 실시하였다. 면담은 '체험형 생활이 어떠한가요?'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하여 연구자보다는 연구참여자의 시각과 관점에서 체험을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자료가 포화되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였다.

1차 면담시 연구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의 누락과 오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또한 연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노트를 병행하여 주요 사항을 기록하였다. 1차 면담은 체험형 입주 후 3개월 간격으로 4차례 이루어져 1년 동안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2차 대상자의 면담은 입주 시, 입주 후 3개월 간격으로 3차례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가 자신이 면담시 충분히 생각하고 경험한 체험형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며 경청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녹음된 내용을 현장노트와 함께 문서화하였으며 문서화 도중 의문스러운 내용은 다음 면담시 질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주제 구성시 내용의 적절함에 대한 검토의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 9명을 2018년 3월에 전체 내용을 검토하면서 1회 집단모임으로 자료수집 내용의 의미가 적절한지 보완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 중 Colaizzi [19]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제1단계에서는 녹음된 면담 내용을 경청하면서 필사한 후,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각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각자 참여자 면담내용의 필사본을 읽으면서 참여자 경험의 본질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진술문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문을 중심으로 주요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제3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각자 주요 진술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한 단계 더 추상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였다. 각자 구성한 의미를 연구자들이 함께 확인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하나로 통합하였다. 또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숨겨진 의미를 한 단계 더 추상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제4단계에서는 도출된 의미들 중 유사한 것들을 통합하고 분류하면서 주제를 조직하고, 주제를 묶어 주제 모음으로 조직하였다. 또한, 의미를 통합하고 분류하면서 연구참여자와 1회의 집단모임으로 의미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하였다. 제5단계에서는 주제모음들이 나타내는 현상을 주제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제6단계에서는 정신장애인 체험형 경험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주제모음을 구성하였다. 제7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발견된 본질적인 구조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체험형 사업 총괄 및 담당자 2인(정신건강전문요원)과 연구참여자 3인으로부터 분석결과와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5. 연구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확인은 Guba와 Lincoln[20]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근거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통해 정신장애인 체험홈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면담을 하는 동안 모호한 진술이 있는 경우 참여자에게 다시 질문하여 진술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자료분석시 참여자의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자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분석결과를 상호점검하여 공통된 의미를 발견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주제모음, 주제, 하위주제에 대해서 참여자 9명에게 반영적 읽기를 하여 자신이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 개인의 독특한 배경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의미있는 진술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주제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각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상태로 더이상 새로운 자료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 기술하였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에서 발견된 주제와 범주에 대한 분석적 사고를 위해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배우고 연구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주제모음, 주제의 서술과 주제의 적절성,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연구자에 의한 분석과 비교하여 수정하였다. 연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 간에 정신장애인의 체험홈에 대한 이해를 토의하여 검증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성이 면담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에 K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윤리심사를 받았다(IRB NO.118). 참여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자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면담을 시행하였다. 참여자와 보호자에게 연구 도중이라도 참여자가 원한다면 면담을 중단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연구동의를 받았다. 필사본의 작성과 연구결과 진술시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참여자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신원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기호화하여 기록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는 총 9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7명, 여성 2명이었다. 체험홈 거주기간 1년 또는 6개월이었으며, 7명은 거주기간 중에 직업훈련을 하여 직업이 있고, 2명은 지원고용 준비 중이었다. 체험홈 거주기간 종료 후에는 직업 유지 및 독립주거를 형성하였다.

Colaizzi [15]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의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다시 보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6개의 주제모음으로 통합되었다(Table. 1)

1. 제 1주제 모음: 생활터전의 혼란스러움

1) 주제 1: 예측되는 일상생활의 서툰

참여자는 부모님과 거주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일상생활로 청소하기, 식사 준비하기, 정리하기 등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예측하였다. 막상 체험홈에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서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간 사는 동안 같이 있는 00씨나 00씨가 잘해 주고 그런데 00씨는 청소는 잘 안하더라고요. 혼자사려면 밥도 해먹고 건강하게 지내야 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하고만 지내보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안 지내봐서 같이 해야 하는 일이 서툰고 힘들니다(참여자 6).

어머니와 함께 지낼 때는 집안일은 어머니 혼자 하셨습니다. 혼자가 되면 어차피 내가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체험홈을 하면서 챙겨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집에서는 안하다가 이번에 어머니가 손을 다치면서 제가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체험홈을 안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서툰렀을 것 같습니다(참여자 7).

2) 주제 2: 갑작스런 증상발현으로 인한 놀람

참여자는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증상발현, 새로운 환경에서 수면장애 등 증상변화로 갑작스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체험홈에서 증상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대해 대처 노력으로 응급입원 등으로 자신의 병을 조절하고 동료를 배려하기도 하였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증상이 나타났어요. 체험홈에 있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고 갑자기 응급으로 입원을 했어요. 며칠 쉬니까 좋아졌지만 함께 지내는 00가 많이 늘랐습니다(참여자1).

입원을 제외하고 집을 떠나 생활해 본적이 없는 저로서는 잘 할 수 있을 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입주초기 회원들과 체험홈에서 가족처럼 한 공간에서 지내기가 쉽지 않았고, 잠자리가 바뀌어 수면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참여자 8).

3) 주제 3: 타인과 같이 사는 어려움

참여자들을 포함한 체험홈에 거주하는 3명의 회원은 같은 처지에 있어 동면상련을 경험하면서도 매일매일 부딪쳐야 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존재로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런 갈등경험은 직접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고 때로는 서로를 거부하고 상호작용을 자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체험홈하는 동안 회원들에게도 표현을 잘 못하고 일하고 와서 힘들면 그게 표를 안내려고 해도 얼굴에 표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다만 의사소통기술은 그렇게 빨리 늘지가 않아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 행동과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항상 문제인거 같아요. 위축이 되니깐, 선입견도 있고 하니깐... 말해도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참여자 4).

그냥 00형님이랑 00형님이랑 지냈으면 아무문제가 없었을 텐데 집을 옮기면서 같은 처지이지만, 안 되어서, 제가 참았어야 하는데 싸우게 됐어요. 규칙을 알고 있었는데도 잘 안됐습니다(참여자 5).

2. 제 2주제 모음: 체험홈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4) 주제 4: 나만의 공간에서의 자유로움

참여자는 체험홈에서 주어진 공간에서 편안함에서 소중함을 알았고, 자신의 생활에서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정서적인 자유로움을 경험하였다.

일단 살이 많이 줄었습니다. 돈도 많이 저축하고요. 밥도 많이 많이 먹고요. 방의 소중함을 많이 알았습니다(참여자 2).

00이와 싸워도 2~3명 있는 체험홈에서의 생활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좋았습니다. 사람혼기가 있는 게 좋았어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를 많이 안 해도 사람이 있다는 게 혼자 있으면 느낄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공간이어서 자유로운 같아요(참여자4).

5) 주제 5: 지지자로부터의 안정감

참여자는 사례관리자와 체험홈 식구와 관계를 맺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안정감을 보였으며, 이런 안정감은 자신의 발전을 위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경험이었다.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체험홈 생활을 시작했는데 같은 방을 쓰는 형님들과도 많이 친근해졌고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나 규칙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금씩 적응되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3).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00형이라 00형이 잘 대해주고 마음도 잘 맞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낼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니 안정이 되어서 빨리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참여자 5).

6) 주제 6: 경제적 부담감이 감소함

참여자는 체험홈에서 경제관념이 생겨 아끼고 저축하는 모습을 보여 지출은 줄이고 미래를 대비한 저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체험홈의 공동경비로 인해 용돈, 병원비 등 실질적인 지출금액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여 이에 상응하는 금전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00부모님께서 주신 음식도 많이 먹으니...제가 체험홈에서 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병원에 있으면 입원비로 돈이 들고, 집에 있으면 용돈 받아서 생활을 하지만, 체험홈에 있으니 여러 가지 대비 비용을 절약하여 지금 저축을 하고 있으니 부담이 줄어들고 있어요(참여자 2).

새로 이사 온 우리집 같은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주는 만큼 저축도 늘었습니다. 가계부 쓰기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참여자 4).

3. 제 3주제 모음: 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

7) 주제 7 : 힘이 되어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

참여자는 체험홈 생활과정 동안 무엇보다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자신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체험홈 식구, 사례관리자에게 감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00이가 체험홈에서의 생활을 더 중점적으로 생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남은 체험홈 생활기간 동안 그 점만 좀 더 신경 쓰면 더욱 충실한 체험홈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체험홈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준 선생님과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참여자 3).

작년 10월부터 체험홈 생활을 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지난 3월 서울00집에 동지주택을 다녀와선 지금 살고있는 체험홈이 더 감사했어요. 집도 좁지 않고 같이 식사하는 식구들도 있고, 한 달에 한번 갖는 모임도 즐겁고 꼭 내 집 같아서 맘도 편합니다. 힘이 되는 선생님께 감사해요(참여자 4).

8) 주제 8 : 타인의 삶을 통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함

참여자는 체험홈 식구들과 생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였다. 이런 강점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도약할 수 있는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나는 단번에 흥미가 금세 식고 실증을 잘 내는 타입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몸이 피곤함을 자주 느끼고 집중이 안됐습니다. 프로그램시간에 아는 거면 알아서 하기 싫고 모르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랬는데, 체험홈에서 생활하고, 00씨를 보면서, 한 달에 한번 씩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참여자 4).

다른 회원들이 시간이 없고 자기들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는 회원분들 보면서 저도 계획을 수립하는 성격이 되었어요(참여자 6).

9) 주제 9: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참여자는 자신이 시도하는 행동으로부터 성공에

대한 성취를 느끼며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고해졌다. 이로 인해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체험홈 생활을 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고 내 자신의 변화에 내가 가장 놀라고 있다. 계속 원내에서 10여년을 지냈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말이다 그런데 내가 무려 6개월을 밖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나 자신도 놀라울 따름이다(참여자 1).

개인적으로 조금더 발전하는 느낌도 든다. 경제적으로 여유 돈도 조금 모으게 되고 요리를 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무언가 만들어 냈다는 성취감도 있고 체험홈에서의 생활이 많이 편안해졌다(참여자 3).

4. 제 4주제 모음: 주도적인 행동을 선택함

10) 주제 10: 신체건강과 체중조절을 위해 애씀

참여자는 체험홈에 적응한 뒤로는 신체 건강과 체중조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집 주변 공원이나 운동장을 걸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살이 찌니깐 계속 힘이 들고 다리도 아프고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신체건강과 체중조절에 노력을 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저녁 먹고 걷고, 00량요(참여자 1).

혼자가 되면 어차피 내가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체험홈을 하면서 챙겨야할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 신체건강과 체중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신은 약을 잘 먹으면서 5년 동안 유지되었기에 살이 찌니, 신체건강에 더 애쓰게 되었습니다(참여자 7).

11) 주제 11: 경제적 독립을 추구함

참여자는 가족, 사회적지지 체계의 경제적 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경제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 경제를 관리하는 것, 실천하는 것으로 연결하면서 경제적인 생활을 경험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금전적 지원도 있지만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 금전적 어려움과 시간적 어려움 등으로 이런 여가활동이나 문화생활은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처음에는 가계부쓰기나 이달의 목표 정하기, 실천한 것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주별로 체크하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가계부 쓰기는 습관이 될 정도로 잘해 내고 있고 이달의 목표도 어렵지 않고 실현 가능한 것들로 정해서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여 지금 돈을 저축하고 있다(참여자 1).

함께 있다 보니 공동생활비도 내야하고 한번 씩 밥도 사고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체험홈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참여자 5).

12) 주제 12: 꾸준한 활동을 모색함

참여자 5는 체험홈 과정에서 재발예방을 위해 터득한 대처능력 즉, 사회기술, 일상생활, 직업재활 등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활동을 모색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입주 6개월이 지나면서 약도 꼬박꼬박 먹고요, 샤워, 면도, 속옷 갈아입기, 이런 개인위생도 전보다 훨씬 나아져서. 무엇보다도 직장이 생겨서 일도하고 살도 빠지고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3개월 지나서도 안 게을러지고 계속 지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1).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람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발전하는 느낌도 든다. 회원들과 함께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무언가 만들어 냈다는 성취감도 있고 체험홈에서의 생활이 재미있어졌습니다(참여자 3).

5. 제 5주제 모음 :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움

13) 주제 13: 독립된 주거와 관련된 계획을 세움

참여자 5는 부모님 사망 후 혼자 살아야 하는 미래의 삶의 준비뿐만 아니라 현재부터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현실계획 수립에 대비하여 독립된 주거를 준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저런 일 많이 있었다. 체험홈을 만들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선생님들과 금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신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도 깊이 감사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체험홈 생활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분을 얻어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서 조만간 임대아파트로 갈 수 있을 것 같다(참여자 1).

작년 체험홈 생활을 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부모님 사망 후 혼자 살아야 하는 미래의 삶의 준비였는데, 이제는 체험홈에서 편히 살고 저축을 해 진짜 내 집이 생길 때까지 잘 살고 싶다(참여자 5).

14) 주제 14: 주체적인 자기 결정을 시도함

참여자 5는 자신의 생각, 행동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을 시도하였다. 가족생활위주에서 자신의 여가생활, 직장생활, 체험홈 생활 등 전반적인 생활영역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하며 책임질 수 있는 자기결정을 경험하였다.

혼자 지내게 되면 생기는 외로움이나 문제들도 체험홈 생활을 하며 알게 된 동생들과 연락하고 가끔 만나서 커피도 한 잔 하고 그러면 해소될 것 같다. 새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아직은 마냥 좋기만 하다. 나 혼자서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이 좋다(참여자 1).

반상회를 통해 친목도모와 새로운 한 달을 계획하고 생활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험홈에서의 시간을 독립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로 삼고 열심히 배우고 도우며 생활할 계획입니다. 반상회를 통해 우리들끼리 자기결정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참여자 8).

15) 주제 15: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고안함

참여자 5는 체험홈에서 생활하면서 문제를 겪었을 때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다양한 생활영역을 통해 문제해결 방법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런 경험은 이전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자신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고 찾아가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처음 두 달간은 이것저것 해야 하는 게 많아서 혼

란스러웠는데, 이제 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터득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한 달 1회 우리집 식구들과 반상회 개최를 해서 방법을 물어서 제가 해결하게 되었습니다(참여자 3)

입주 3개월이 지나면서 자립준비교육과 상담을 통해 독립에 필요한 교육과 어려움들을 동료들과 함께 알아가고, 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며 되었습니다(참여자 8).

6. 제 6주제 모음 : 진정한 삶에 통합함

16) 주제 16: 동료들과 삶을 공유함

참여자 8은 자립을 준비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다른 동료회원들에게 SNS로 공유하거나, 직장동료들과 나누는 삶을 경험하였다.

생활의 무료함이나 목표.. 같은 게 한방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은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는 공간만 혼자 있게 되는 거지 주말이나 일터에서 사람들과 항상 같이 있게 될 거니까(참여자 4).

저도 6개월 후에 자립을 하려고 지금 임대아파트 신청해두었어요. 만일 떨어지면, 이 근처에 원룸 빌라가 있어서 일단 거기서 생활하면서 다시 신청해보려고 해요. 1기 누리집 체험홈 했던 친구가 알려주었어요. 서로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는지 공유하고 해요. 밴드에 00하면 다 나와요(참여자 6).

17) 주제 17: 내 삶에 만족함

참여자 8은 자립을 준비하는 체험홈 생활에 만족하였으며, 이런 경험은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격려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에 스스로 응원하는 환류로 연결되었다. 또한, 독립된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과 자립에 성공한 자신의 삶에 만족하였다.

체험홈 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건강관리, 위생관리, 약관리, 생활 전반적으로 잘 지내기 등을 잘 수행해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체험홈 생활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내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참여자 1).

예전에는 몰랐는데, 방은 제 공간이거든요, 제가 청소하고, 그런 공간에 혼자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요새는 좀 친해져서 같이 운동도 다니고 하니깐, 그런 생활도 너무 좋고, 만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축도 하고, 조만간에 임대아파트 준비되어서 드디어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9).

표 1. 자립준비를 위한 경험 주제모음

Table 1. Clusters of Themes of the Supported Housing Experiences

Clusters of themes	Themes
생활터전의 혼란스러움	예측되는 일상생활의 서툰 감각스런 증상발현으로 인한 놀람 타인과 같이 사는 어려움
체험홈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나만의 공간에서 자유로움 지지자들로부터의 안정감 경제적인 부담감이 감소함
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	힘이 되어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 타인의 삶을 통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함 할 수 있다는 자심감이 생김
주도적인 행동을 선택함	신체건강과 체중조절을 위해 애쓰 경제적 독립을 추구함 꾸준한 활동을 모색함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움	독립된 주거와 관련된 계획을 세움 주체적인 자기결정을 시도함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고안함
진정한 삶에 통합함	동료들과 삶을 공유함 내 삶에 만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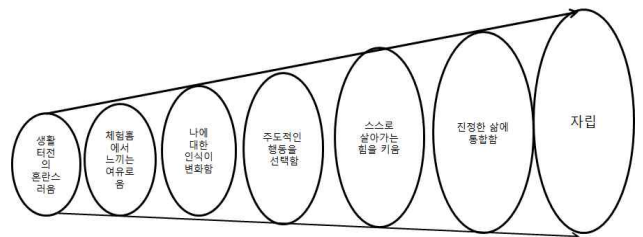


그림 1. 자립준비경험 과정

Figure 1. Process of supported housing experiences

IV. 논의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준비를 위한 체험홈 경험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생활터전의 혼란스러움’은 체

협흥 입소 직후 정신장애인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는데, 함께 살기의 답답함이라고 표현한 Kim[21]의 연구결과와 일부 유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부모와 분리된 홈에서의 경험은 일상생활, 정신과적 증상, 대인관계 영역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결과는 자신의 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인관계 훈련[22],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23]이 필요함을 언급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자립준비를 위한 체험홈 및 주거 지원에 따른 일상생활, 증상, 대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체험홈에서 느끼는 여유로움’을 경험하였다. Bae와 Park[16]의 연구에서도 혼자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표현한 것과도 유사하다. 따라서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내 집으로 규명함으로써 안정성, 편안함 등이 창출되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23]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전세 등 자기 주택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면 이는 정신장애인에게 내 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지지자들로부터의 안정감은 참여자들이 체험홈에서 혼란스러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는 Kim과 Kim[24]의 연구에서 동료, 직원과 새가족 만들기 의미 있게 도출된 결과와 유사하다. 새가족과 관련해서 본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동료와 사례관리자를 새가족, 자신의 지지자로 생각하면 고마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Bae와 Park[16]의 연구에서도 직원이 살펴봐 주어서 좋았다고 한 부분과 유사하다. 즉, 정신장애인이 자립준비와 지역사회 독립주거 형성에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은 체험홈 적응과정에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정신장애인의 새로운 변화 동기를 개인적 측면에서 표현한 Yoo와 Sung[25]의 일부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한편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26-28] 보고되지 않은 현상으로서, 제도적, 문화적 영향이 다른 부분으로 추론된다. 국내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교육중재 또는 성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국외연구[28]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는 주거에 대한 경험을 어둠의 삶이라는 주제로 억압적인

삶으로 역설적인 일상생활에 대해 보고한 내용도 있었다. 각 나라의 제도적 서비스의 흐름과 연결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도적인 행동을 선택함’을 경험하였다. O’Hara 등[29]의 연구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주거 적응단계에서는 상황에 적합한 행동전략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재를 제공한 것과 유사하다. 이는 주거 프로그램 지원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에 주도적인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서로를 공감하고 책임을 바탕으로 한 주도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움’은 자립의 능력을 다짐이라고 표현한 Bae와 Park[16]과 내 힘으로 살아가기라고 표현한 Seo[14] 및 주거를 준비하면서 미래에 대한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찾아 가는 과정 속의 결과라고 보고한 Kim 등[30] 연구결과와 일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 속에서 주체적인 결정으로 책임지고, 미래를 계획하며,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자립준비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역시 어느 정도의 정신건강지원 서비스를 원한다는 선행연구[23]와 일부 유사하다. 즉, 정신장애인 자립준비를 위한 체험홈에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참여자는 체험홈 적응 후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삶에 통합’하게 되었다. 이 통합과정에는 동료들과 내 삶을 공유하고, 내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는 보고되지 않은 현상이다. 앞으로는 정신장애인 자립준비를 위한 상담에 동료들과 자립준비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동료지지 상담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5년 이후 24년 동안 정신보건현장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욕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정신병원 및 입소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보장된 주거지원서비스는 기관주도로 운영되는 입소시설이 전부이다. 이는 병원을 퇴원한 후 입소

시설에서 최대 3년간의 주거훈련을 받은 후 퇴소하면 스스로 집을 구하고 혼자 살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제도권 내에서의 주거지원서비스가 아닌 민간의 재원으로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운영한 체험홈이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체험홈 경험을 통해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체험홈 경험을 드러내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공동모금회 지원 체험홈의 사업 결과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정신장애인은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신재활시설에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적 지원 및 확대를 희망한다. 정신장애인의 체험홈 경험은 혼란스러움으로 시작하지만 여유로움, 인식과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 살아가는 힘을 드높여 진정한 삶으로 통합하고 있었다. 이는 체험홈 경험은 정신장애인 자립을 구축에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나, 정신장애인의 인식과 행동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정신건강간호사들이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체험홈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체험홈 맞춤형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개발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정신장애인 체험홈 적용과정에 대한 심층적 탐색을 위한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한 후속연구와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References

- [1] Siskind D, Harris, M, Kisely S, Siskind V. A retrospective quasi-experimental study of a transitional housing program for patients with severe and persistent mental illn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014;50(5):538-547.
- [2] Sylvestre J, George L, Aubry T, Durbin J, Nelson G, Trainor J. Strengthening Ontario's system of housing for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Canadian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2007;26(1):79-95. <https://doi.org/10.7870/cjcmh-2007-0014>
- [3] Kim MK. A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mentally disabled and family members.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8. 429 p
- [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 study on strengthening housing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Seoul: Samonprinting Publications; 2014. 182 p
- [5] Nam SH, Byun KH, Kim DK, Lee MJ, Kim YH, Yoon DC. A survey on human rights situation of group homes for the disabled.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5. 165 p
-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ental health policy and service guidelines 2018. Sejong: Author; 2018.
- [7] Rog DJ. The evidence on supported housing.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004;27(4): 334-344.
- [8] Kown SJ, Hoe MS. A study of housing accommodation preference of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010;29(1):7-31.
- [9] Bak SH. Independent living of mentally disabled pilot project's future policy directions: Chest to nonprofit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Urbanity & Poverty*. 2012;101(0):44-63.
- [10] Byun EK, Yoon SJ. A study on the residential relational factors and residential service needs of persons with a mental disabil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0;19(1):85-95.
- [11] Supported housing and care homes [Internet]. 2018 April[cited 2018 April 2]. Available from: <https://www.nidirect.gov.uk/articles/supported-housing-and-care-homes>
- [12] Stanhope SL, Stanhope V, Atterbury K. Discursive processes creating team culture and recovery orientation among housing first provi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ic Rehabilitation*. 2015;18(3):247-264.
- [13] Chung MS, Kang, SL.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in mentally disabled residents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010;24:81-108.
- [14] Seo KD. A study on the independent housing experience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08;30:239-271.

- [15] Chang HK, Lee YP, Park KS. The habiting experience of the mentally disabled in institutional spaces. *Seoul Studies*. 2015;16(3):189-208.
- [16] Bae EM, Park HJ. The experience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supported housing.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2017;11(1):59-87.
- [17] Park JY.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xperience of residing at independent home. *Korean Academy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2011;5(2):35-59.
- [18] Kim RK. A study of support and service need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group homes. *Korean Association of Development Disabilities*. 2016;20(2):1-24.
- [19] Colaizzi P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71 p. (Valle RS, King M, Editor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 [20] Guba EG, Lincoln YS.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89. 296 p
- [21] Kim DY.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life experience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 housing facilit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009;11:183-220.
- [22] Nelson G, Clarke J, Febbraro A. A narrative approach to the evaluation of supportive housing: Stories of homeless people who have experienced serious mental illnes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005;29(2):98-104.
- [23] Jones R, Chesters J, Fletcher M. Make yourself at home: People living with psychiatric disability in public hou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2003;7:67-79.
- [24] Kim KJ, Kim SJ. A qualitative study on mentally illness's adaptation in their using residential facility.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2007;23(1):193-220.
- [25] Yoo SH, Sung JM. A qualitative study on mentally illness's adaptation in their supported house.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2005;5:383-404.
- [26] Tsai J, Bond GR, Salyers MP, Godfrey JL. Housing preferences and choices among adults with mental illness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 qualitative stud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010;46(4):381-388.
10.1007/s10597-009-9268-6
- [27] Brueckner M, Green M, Saggars S. The trappings of home: Young homeless people's transitions towards independent living. *Housing Studies*. 2011;26(1):1-16.
- [28] Bengtsson-Tops A, Ericsson U, Ehliasson K. Living in supportive housing for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A paradoxical everyday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2014;23(5):409-418.
<https://doi.org/10.1111/inm.12072>
- [29] O'Hara K, Stefancic A, Cabassa LJ. Developing a peer-based healthy lifestyle program for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in supportive housing. *Translational Behavioral Medicine*. 2017;7(4):793-803.
<https://doi.org/10.1007/s13142-016-0457-x>
- [30] Kim MY, Koo JH, Koo CY. Concepts analysis of self-reliance in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6;25(3):155-165.
<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3.155>

※ 본 연구는 2016년 2017년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운영」 사업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 참여 및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